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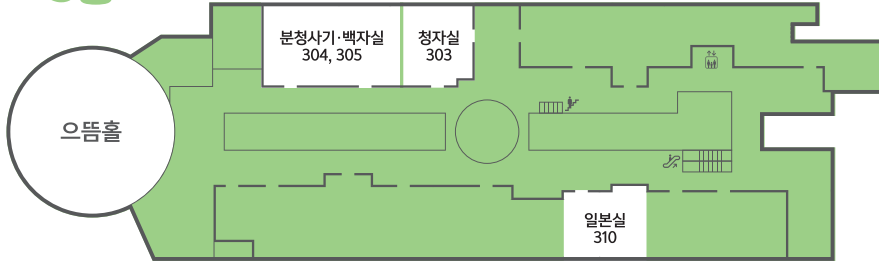
두지와 새해 기운 가득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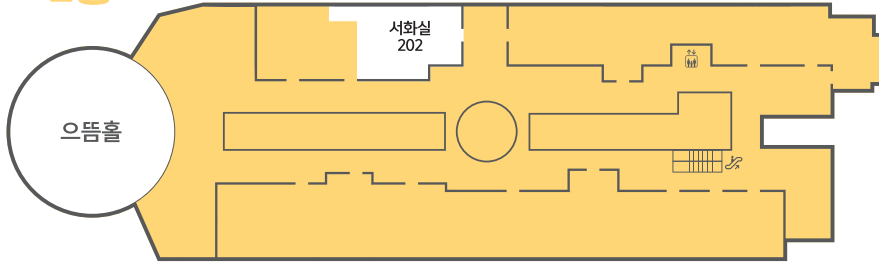
국립중앙박물관
어린이박물관
CHILDREN'S MUSEUM

두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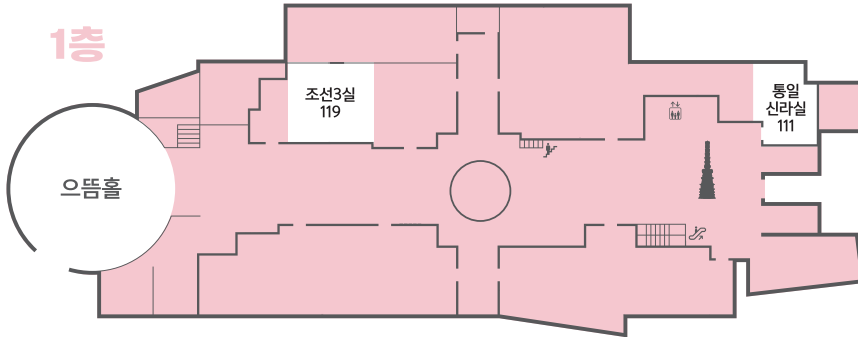
3층



2층



1층



2023년 ‘토끼’의 해가 밝았어요!

새해를 맞아 토끼가 좋은 기운을 나누어주려고
박물관에 찾아왔대요.

우리 함께 토끼와 관련된 전시품을 찾아보고
행복을 나눠볼까요?



'내 간은 아무도 못 줘.' 지혜로운 토끼

1층
조선3실

토끼는 민첩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.
예민한 귀와 커다란 발로 주위를 살피며 위기를 잘 넘긴답니다.

● '별주부전(토끼의 간)' 줄거리를 순서대로 구성해보세요.

(어린이가 내용을 모르면 보호자가 설명해주세요.)

- 토끼는 “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”라고 속여 다시 육지로 올라왔어요.
- 자라가 육지로 올라가 토끼를 속여 바다로 데려갔어요.
- 아픈 용왕님을 위해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려고 해요.
- 토끼는 간 대신 똥을 주고 도망쳤어요.

● 연적에서 파란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무엇일까요?

찾아보세요!

연적 (조선시대)



● 나도 '별주부전'의 토끼처럼 지혜를 발휘해 어려움을 해결한 적이 있나요?

나쁜 기운아 저리가! 수호 토끼

토끼가 갑옷을 입고, 칼과 를 들고 있어요. 토끼는 왜 무장을 하고 있을까요?
토끼는 무덤을 지키는 열두 동물 가운데 하나였어요.
동남쪽에 서서 무덤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물리쳐 무덤 주인을 지켜주었습니다.



- 토끼가 들고 있는 칼이 부러졌어요.
부러진 부분을 상상하여 그려보세요.



찾아보세요!

십이지상
(통일신라시대)

- 나를 지켜주는 나만의 수호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.

- 전시장 안에 토끼 옆에 서 있는 다른 동물은 무엇일까요?



건강하게 오래 사는 달 토끼

2층
서화2실

옛날 사람들은 달에 토끼가 산다고 생각했어요. 달에 사는 토끼는 열심히 절구질을 했어요. 절구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? 토끼는 약초를 빻아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약을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달 토끼는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 되었답니다.

● 위치를 찾아 스티커를 붙여보세요. 토끼는 어디에 있을까요?



찾아보세요!

문자도 (조선시대)



- 그림(병풍)에 있는 동물 친구를 모두 찾아보세요. 또 누가 있나요?

- 오늘밤, 달을 보며 토끼를 찾아보세요. 달 토끼에게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소망해 볼까요?

잡았다, 토끼!

매가 토끼를 잡는 그림은 옛날 사람들이 신년을 맞이해 한 해 동안 잘 지내게 해달라는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이에요. 용맹한 매처럼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지요. 그런데 토끼는 무서워 어디론가 달아나네요. 아래 작품에 동그라미를 그려 토끼를 지켜주세요.



- 아래 그림들도 모두 옛날 사람들이 새해를 기념해 그렸던 그림이에요. 어떤 동물들인지 적어보세요.



찾아보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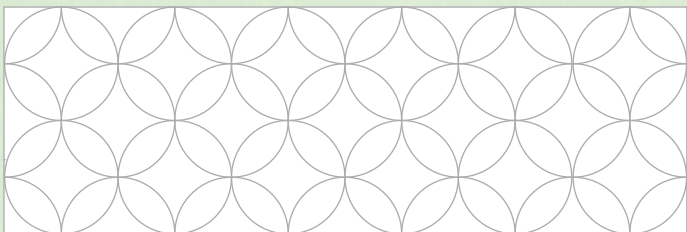
매를 피해 도망가는 토끼 (조선시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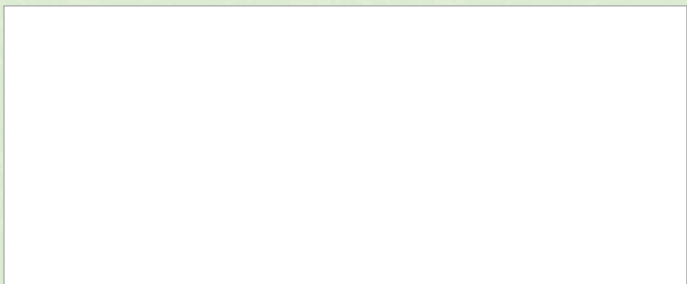
이 물건은 입니다. 안에 향을 넣고 피우면, 공 모양 뚜껑의 뚫린 구멍 사이로 연기가 솔솔 피어올라요.
공 모양 뚜껑은 여러 개의 원이 겹쳐진 '칠보무늬'로, 복을 의미한답니다.
그런데 토끼는 어디에 있나요? 몇 마리인가요?

3층
청자실

- 칠보무늬에 색을 칠해볼까요? 행복은 어떤 색일까요?



- 동그라미 여러 개를 이용해 행복을 상징하는 나만의 무늬를 그려보세요.



찾아보세요!

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
(고려시대)

러미 14 / 품을 : 4000

3층

분청사기
-백자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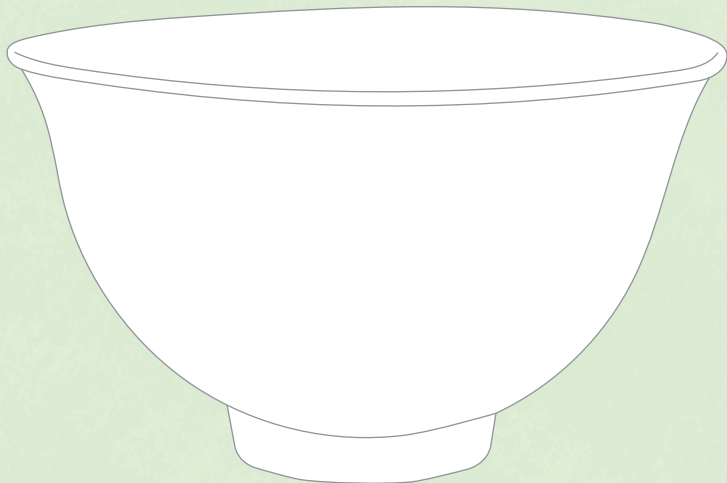
행복의 또 다른 상징, 박쥐

토끼의 친구를 소개합니다. 박쥐는 한자로 '복蝠'이라고 씁니다.

행복의 '복福'과 발음이 같아서 옛 사람들은 여러 물건에 박쥐 문양을 넣어 복을 기원했습니다. 아래 그릇을 보세요. 박쥐가 한 가득이죠? 행복도 한 가득 담았답니다.



- 행복을 담은 여러분의 그릇, 어떤 무늬를 넣고 싶나요?
자유롭게 꾸며보세요.



- 전시장에서 박쥐무늬 접시 옆에 보이는 모란무늬와 석류무늬는
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?



찾아보세요!

박쥐무늬접시
(조선시대)



용기 내어 새 학기를 향해~ "깡총"

3층
일본실

'봄날의 흰 토끼'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접시입니다.
봄은 새싹이 움트고 생명이 자라나는 계절이지요. 시작의 계절인 봄처럼,
봄날의 토끼는 무언가를 힘차게 시작하려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네요.

- 아래 네 가지 그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토끼 옆에 자유롭게 그려보세요.



모란(부귀영화)



연밥(시험합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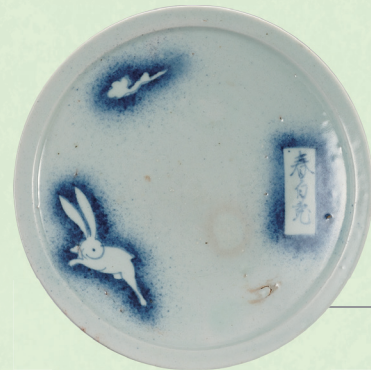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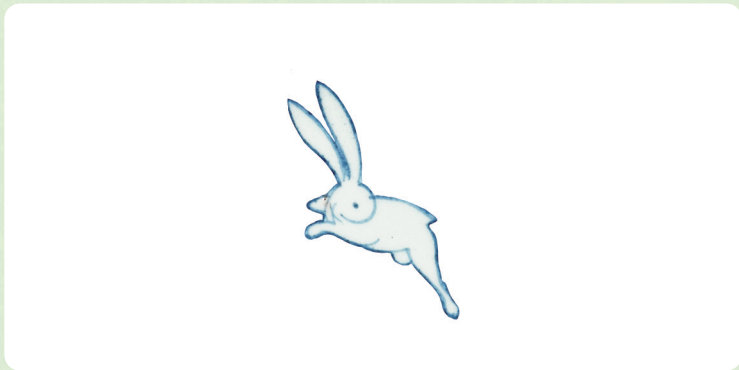


복숭아(불로장생)



나비(장수)

- 새 학기를 앞둔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보세요.



찾아보세요!
토끼무늬 접시
(일본 에도시대)

다양한 토끼를 만난 여러분은 지혜, 행복, 건강, 용기를 획득하였습니다.
축하해요! 우리 모두 즐거운 한 해를 맞이해요!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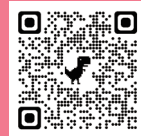


국립중앙박물관
어린이박물관
CHILDREN'S MUSEUM

기획 · 개발 | 김지선, 이예슬

발행 |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

편집 · 디자인 | 주식회사 더블유프로젝트



QR로 들어가
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!

© 이 활동지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려면 반드시 국립중앙박물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● 동물의 위치를 찾아주세요. 토끼를 찾았나요?

